

정치, '상생'이라는 화두 풀기

국내 정치는 여야의 끊임없는 정쟁으로 해결해야 할 민생 법안을 신세해 놓고 있다. 대외적으로

'큰 이익' 위해 '자기' 버릴 줄 알아야

'국민들이 쓰러져 가도 정쟁(政爭)은 멈추지 않는다.'

한국 정치는 갈등과 분열의 산과 구실을 하고 있다. 조정과 타협은 뒷전이고 오히려 계층 및 지

역간의 대립과 투쟁을 부채질하고 있다. 행정수

도 이전 논란도 헌법재판소의 법리 자구해석에

의지해야 했다. 정치권은 격한 전방 논란의 조율

은 커녕, 각 당의 이익에 휩싸여 갈등을 주었다.

파당적인 정쟁이외에도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그래도 이번 국회만큼은 다르겠지"라며 기대

어린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출범한 17대 국회는

'젊은 국회'란 문패를 걸고 개원했다. 그러나 얼마

못가 파당간 장벽과 날치기 정국이란 오명은

역시 씻지 못했다. 앞에서 격돌하고 뒤돌아서

술잔을 나누는 남반의 정치문화에서 옛보이던

인간적 대화는 더더욱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이념에 절대성 부여할때 타인을 향한 마음 닫혀

이런 현실에서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말은 부처님 말씀이 정치에 얼마나 필수불가결한

사상인가를 말해 주고 있다. 이 의장은 지난해

12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얼마 전에 모 스님

을 만났는데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는 상생(相

生)이란 말도 좋지만 원초대사가 말한 화평(和

靜)이란 말을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

했다고 한다. 이 의장은 "상생은 하향 평준화의

의미가 있지만 화평은 서로 화합하되 따질 것은

따지면서 더 좋은 쪽으로 나간다는 것"이라며

"요즘 시국에서 화평이란 말을 다시 떠올려

본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불교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정치는 바로 상생

과 화평으로 이루어진 정법(正法)을 통해 다스리

는 것이다. 상생과 화합 속에서 정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보호해야 민생이 안정되고 나라의 질서

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금광명경>에는 이러한

사상이 유포되지 않은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국도를 수호하는 무량한 선신(善神)들도

모두 버리고 떠나갈 것인데, 이미 버리고 떠나가고

나면 그 나라에는 마땅히 갖가지 혼란과 재앙이

있고, 모든 중생은 착한 마음을 잃고 오직

번뇌만이 있고, 살해와 다툼과 서로서로

핍음과 무고함만이 있을 것이다"고 했다.

평소 <금강경>을 좋아한다는 박세일 한나라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은 '갈등과 분열'로 압축할 수 있다. 그래서 '상생과 화합'을 강조한 부처님 가르침은

부처님 가르침대로 나라 다스린 아쇼카왕

기원전 3세기 인도의 마가다국 마우리아

왕조 아쇼카왕은 부처님 가르침을 정치 이상

에 실현한 최초의 왕이다.

불법(佛法)에 따라 아쇼카왕은 우선 험let고

굶주린 국민들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각 도시

마다 가축병원까지 있는 구호시설인 자비원

과 보시원 등을 건립했다. 세심한 배려로

국민들이 아파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정법을 따르는 군주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아쇼카왕은 국가 정책도 불교적으로

수립해나갔다. 이를 위해 '법대관(法大官)'

이라는 부서를 따로 설치할 정도였다.

아쇼카왕은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법의 순행'을 하기도 했는데 이는

각 지역 행정 수반들이 정법에 맞게

국민들을 통치하고 있는지, 반대

할 수 있다. 즉 자신이 옳고, 자신이

따르고 있는 이념과 사상에 절대성을

부여할 때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에 상(相)을 만들지 말라는 의미라

할 수 있다. 결국 부처님 말씀대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진리'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 속에 잠기지

않는 중도의 마음을 가질 때 상생과

화해의 정치가 가능해 질 것이라는

박 의원의 생각이다. 이리크 문제나

중국의 역사, 왜국 문제

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

지를 알기 위해서였다.

또한 아쇼카왕은 궁중의 연회 때

마다 가족을 도살하던 관행을 폐지

하면서 불살생의 계율을 지키기도

하는 등 국가 행사 진행 절차

조차도 불교의 가르침에 따랐다.

이후 아쇼카왕은 부처님의 법에

의한 승리라는 의미로 '마에14장

법칙'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새긴

석주를 성지 곳곳에 세웠다.

아쇼카왕은 "정치란 국민에 대한

빛을 갖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치란 국민을 위한 것이다. 바로

국민들이 아파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상대

방과 나와 의견을 좁힐 줄 아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잘못

된 것은 합리적으로 따지고 또한

자질구래한 허물은 대국적으로

용서와 관용을 베풀어 준다면

오히려 약화된 국제 관계의 위기

속에서 전화위복을 맞출 수

있다는게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한 남북문제도 불교적으로

바라볼 때 '뿌리의 중립성'이라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불교

는 한민족의 오랜 문화적 토대로

이어져왔다. 불교를 정치문제에

직접 이용하기 보다는 신계사

복원과 같은 남북문화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불교 교류

활성화의 틀을 마련한 다음에

남북문제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교계 남북문제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하지만 상생의 측면에서 보면

남북문제를 꼭 정치나 문화교류

쪽으로 한정되게 치우쳐서도

안된다. 견해도 지배적이다. 부처

님 가르침에

자비·평등·평화 입각한 중도의

지혜 절실

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상이 '인간

중중'이란 점을 감안할 때

북한 동포의 인권과 민생안정도

대북 정책을 결정할 때 심각하게

고려돼야 할 중요한 요소라는

의견도 많다.

정전교수(영산대 국제학부)는

"불교인의 정치 참여는 정치체

계를 끊임없이 불교적으로

변화시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치체계에 실현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참여가 자비·평등정신과

평화주의에 부합해야 하며

어떤 윤리 덕목도 절대화하지

않는 중도의 자세가 필요하다

고 정 교수는 지적한다.

윤세원 교수(인천전문대)는

"이 시대의 시대정신을 '참여'라는

불교를 국가이념으로 삼은 나라들

종교 넘어 사회통합 구심역

중국은 불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고 불교

전체 인구의 10% 정도인 1억 3천만

명의 불교인구를 갖고 있는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는 2008년

까지 3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불교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다. 불교가 국가 이념에

반하지 않고 '화해와 상생'을

표현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에서다. 불교가 거대한

중국사회를 하나로 묶는

통합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중국은 최근 종합적인

종교인문부 규정을 제정하는

조례를 새로 마련했다. 올해 3월

시행되는 '종교사무 조례'는

신앙과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

면서 신앙인과 비신앙인, 다른

종교간 상호 존중을 규정하고

있다. 또 여러 정부기관의

감독·책임 영역을 분명히

하는 한편 정부 통제하에서

종교관련 출판물을 내도록

규정해 종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불교에 대해 지속적인

장려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불교를 국교로 삼은

동남아시아권 국가에서는

불교적 세계관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승가는 국가

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국가권력보다 정신적인

우위에 놓여있다. 상좌부

불교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스리랑카는 정부기관으로

종교성을 별도로 두어 불교

를 비롯한 각 종교활동을

관리하고 있다. 국가

종교사무 스리랑카에 3개

종교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

70%에 달하는 국민들이

불교를 믿고 있고, 스님들의

정치활동도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편이다. 태국

태국에서의 불교는 국민들

謹賀新年 佛紀 2549 年

을유년 새해 자비광명 온누리

대한불교조계종 청암사 승가대학 학장 지형 주지 상덕 학인 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은적사 주지 虛韻 신도회장 하보타월 봉사단장 문청량심 합창단장 권정행성 문사수법회회장 최선해심

대한불교조계종 용연사 주지 지운 신도일동

高靈기와 (주)高靈청기와 (고령기와는 명품기와만을 만듭니다.) KS表示許可 중소기업우수제품 인증工場

제4회 불교민화 공모전 최고 문화부장관상 상금200만원 불교적 소재와 주제라면 모두 o.k!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